

## 돌봄서비스와 외국인 노동

이 규 용\*

가사서비스에 이미 취업이 허용된 외국국적동포 이외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서비스를 포함하여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노동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의 인구감소,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다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고령화에 따른 공급 제약은 외국인 인력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이다.

외국인 인력의 도입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파급경로를 갖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외국인 유입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숙련, 즉 비용대비 생산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고용주의 자격요건을 부여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력을 선별하고 알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변동이나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민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생산물을 산출하는 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서비스 제공 장소(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고용계약의 주체, 서비스 제공 범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등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또한 시장기능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뿐만 아니라,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서비스 정책과의 조응도 필요하다.

최근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인력 도입 이슈는 다소 논쟁적이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포함하여 제반 돌봄서비스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진단이나 서비스 수혜자의 특성,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의 산물이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leeky@kli.re.kr).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값싼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크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 및 논거를 볼 때 도입 목적을 달성할지 의문이다.

'정치적 판단 및 결정'과 '정책실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정치적 결정으로 정책의 난맥을 뚫을 수 있도록 하거나, 촘촘한 정책설계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촉발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분야의 논쟁적인 요소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분야에 한정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돌봄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 요양병원, 출생률 제고정책과 아이돌봄의 사각지대,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노동, 존엄한 노년기 수요와 시설서비스 중심의 요양과 간병체계 등은 돌봄서비스업을 표현하는 개념들로 이들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침 한국노동연구원은 2022년에 「돌봄서비스업 외국인 노동시장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금번 『노동리뷰』에 게재된 네 편의 글은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업을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돌봄서비스업 분야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외국인력 공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그 틀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가사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도입 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업 전반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서비스 수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여 돌봄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정부의 역할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금번 『노동리뷰』에 수록된 글들이 이러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KLI**